

# “U대회 단일팀, 민족단합 보여줄 좋은 기회”

광주 YLP 참가 19개국 청년 ‘미디어 오픈데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참석한 북한 등 19개국 청년들이 광주시민의 환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북한 대표는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7일 오후 YLP 행사 6일차를 맞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데이’에서 인터뷰에 나선 북한대표 주혁(25)씨는 “UN에서 만든 평화를 위한 강습에 참여하려 왔는데 세계 여러나라 참가자들과 어울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재미있다”면서 “특히 환경과 남녀평등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선체육대학에서 연구사(교직원)로 일하고 있다는 주씨는 “우리나라(북한)에서도 환경과 남녀평등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광주 U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는 U대회 자체를 몰라 답변하지 못 했으며, 대회 관계자가 U대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다시 질문을 하자 “단일팀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단일팀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라며 소신있는 답변을 내놨다.

인도 대표로 참가한 비크렐 비바브(25)씨는 참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이 19개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스포츠라는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광주 시민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 마치 집에 있는 듯한 착각이 정도로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며 활짝 웃었다.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밝힌 두하 자랄(여·18)씨는 양국(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혼란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함께하는 첫 농구팀을 직접 결성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스포츠를 통해 목표가 같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학합할 수 있게 된다”며 스포츠와 평화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통가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소속

북대표 “남녀평등 인상적”

스포츠·평화 연계성 강조

참가자들 “광주시민 환대 감사”

으로 참가한 일리소니 타부아(27)씨는 “이번 프로그램 중 두눈을 가지고 일정 시간을 보내는 시각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두 다리가 없는 하반신 장애인이기도 한 그는 “보디밸리딩을 비롯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페럴립픽에 참가한 경험도 있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유스리더십프로그램은 분쟁 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청년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구와 수영, 복싱,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체육 종목을 체험하고, 성평등과 평화, 장애극복, 환경보전 분야에서 실기와 이론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7일 오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유스리더십프로그램 ‘미디어 오픈데이’에서 북한대표인 주혁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농업유산 등재

## 한·중·일 농업유산 전문가들 함께 나선다

### 완도서 국제 워크숍

청산도 구들장 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이하 지하스) 등재 추진을 위한 한·중·일 국제 워크숍이 27일 완도 청산도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 유엔대학의 타케우치 가즈히코 교수,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연구소 허루 박사는, 한국농어촌 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농업유산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유엔대학의 타케우치 교수는 “일본 구들장 논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관계시설을 갖춘

독특한 농법으로 유산적 가치가 높아 지하스 등재 가능성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농업유산이 되려면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융합을 통한 회복력 강화, 6차 산업화 등 뉴비지니스 모델 창출, 새로운 공유지의 설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학원의 허루 박사는 “중국에도 지하스 등재 지역이 있으며, 청

산도는 중국과는 달리 문화·경관·생물 다양성 등이 잘 보전돼 있다”고 밝

혔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구들장 논과 서편지, 초분, 고인돌 유적, 상서리 옛 돌담길, 범비와 등 청산도의 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풍광에 매료됐다.

또한 느린섬 여행학교에서 슬로푸드인 ‘청산도 탕 만들기’ 체험, 해안가에서 ‘해녀 물질 관람’ ‘조개공예 체험’ 등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체험을 하고 구들장 논의 지하스 등재를 지원하는 사인회를 가졌다.

완도군은 일본에서 열린 지하스 국제포럼 참가, 지하스 관계자 청산도 현장 실사, 농업유산 권위자인 일본 가나자와 교수 자문을 받는 등 청산



27일 완도 청산도에서 열린 한·중·일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본 유엔대학 타케우치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완도군 제공〉

도 구들장 논의 등재 준비를 꼼꼼히 추진하고 있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홍보단을 보내는 등 지하스 등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독특한 문화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청산도의 구들장 논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 관리·보전해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력 : ₩360,000

###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아간반 : 18:30~21:00

###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료시 총장 빌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국)공립인기원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인정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 (061)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공)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이침마당 출연강의 등  
건설교통부관련 초청 세미나토론회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장 소 교육대 평생교육원

일 시 매주(화) 주간 : 10시 야간 : 19시

연락처 062)520-4243

장 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 시 기본반 매주(수) 15시/ 19시  
실전경매 매주(목) 14시/ 19시

연락처 062)530-3873~5

강의료 12만~18만 (4개월 강의료)

특전 : 공인빌딩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취득 하도록 책임지도

## 광주서 ‘韓-동남아 문화장관 회의’

내달 6일 亞문화전당 활성화 교류·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동남아 10개국 문화장관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린다. 마라프라자호텔에서는 ‘제1회 아시아문화언론인 포럼’(9월5일)이, 광주시립미술관 본관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서는 ‘제2회 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9월 3~8일)가 열린다.

참가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 등 10개국이다.

유진호 문체부 장관은 행사에서 동남아 문화장관들과 아시아문화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을 앞두고 문화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아시

아 문화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 문화교류와 관련한 공동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9월 6일 광주시립미술관 특별회의장에서 ‘제1회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참가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 등 10개국이다.

김종율 문체부 장관은 행사에서 동남아 문화장관들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예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

## 영암 F1경주장 연중 200일 이상 ‘질주’ 지역경제 흐자

영암 F1경주장이 국내 모터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아 연중 200일 넘게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네온스타이어스피드레이싱, F1전국인리아마라톤대회에 수천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숙박업소가 민원사례를 이뤘고 주유소와 마트 등 각종 서비스 업소도 매출이 늘었다. 목포 하당지역 상인들은 주말 매출이 20~30% 늘었다고 말했다.

F1 특수는 목표뿐만 아니라 영암과 해남, 신안, 광주까지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스포츠 관광객들이 주변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기 때문이다.

F1 조직위는 올해 국내 22개 모터스포츠 대회 중 16개 대회를 유치, 대회당 3000~4000여 명이 F1경주장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가 선수들도 예선과 결선 등 보통 2~3일 머무는 만큼 대회당 3억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1 조직위는 경주대회 외에도 자동차 관련 기업과 동호인들의 트랙데이 행사 등 경주장 이용일이 연간 240일에 이르러 경주장 입장료 수입도 3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작년 혼외 출생아 1만명 돌파… 100명 중 2.1명 꽂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1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미혼모 관련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9%(185명) 늘어난 1만445명이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냄 1981년(9천74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혼외 출생아는 저출산